거짓말 [18]

본문 ▶ 요한일서 2 : 21 - 23

소제목 ▶▶▶ 누가 과연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1)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음은 물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모든 과정을 통해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몸이 이 흔적을 다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열한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눅24:36-39) 36.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노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살과 뼈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손과 발에 무엇이 있어서일까요? 못 자국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2)

이것은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20:19-20) "19.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이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입니까? 못 자국과 창 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3)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열두 제자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했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20:27-29)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분명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손발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 이 흔적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이 바울의 몸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4)

상처가 생기면 흔적이 남습니다. 내 몸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서 죽는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예수의 흔적이 과연 내 몸에는 있습니까? 단순히 육체의 몸으로 당하는 흔적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외면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내 몸을 바치고 내 몸을 내어놓는 것은 고난만이 아니라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고난을 싫어하거나 꺼려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5)

주님은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조금도 몸 사리지 않고 죽음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고 멸시와 저주를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볼 때 주님 손발의 못 자국, 주님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하신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생긴 예수의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남은 시간 속에서 적어도 주를 위해서 이 몸을 바치고 드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6)

내 몸이 거하는 장소, 내 몸이 거하는 그 시간이 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자리이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의 깨어남과 생명력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가 더 뜨겁게 깨어나고 더 놀랍게 회복되고 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권능의 일들이 더욱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승리와 이김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좋은 나무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놀랍게 풀어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암송 및 묵상 말씀 ☞ ☞ " 갈라디아서 6 : 17 "

---------- ◈ 적 용 ◈ ----------

1.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할 일로 만나지는 영역이나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죽음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이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 됨을 알고 기꺼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게 하소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8:17

2. 나는 과연 내 존재와 삶의 자리에서 내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에 놀라운 돌파가 있게 하소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롬8:18♥